

가정 예배 모범

- 2021_02_1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적인 신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누가복음 14장 1-14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저명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지체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상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법문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율법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열매가 맺히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에 높은 자가 아니라 약자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예수님께서서는 잔치를 베풀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전자들은 잔치를 베풀 후 다시 갚을 수 있지만, 후자들은 다시 되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참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되돌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사랑을 통해,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